

CEO 인권경영 선언

존경하는 주주, 이용자, 구성원, 파트너 여러분,
네이버는 1999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구성원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경영진은 사업의 성장을 구성원, 이용자, 파트너와 함께 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헌신이 사업의 기반과 미래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자랑스러운 일터가 되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편함과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의 성장이 네이버의 성장이라는 인식 하에 공정한 계약을 바탕으로 파트너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파트너스퀘어를 비롯, 파트너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사업영역과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 이용자, 파트너들에 대한 인권 존중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네이버는 인권경영 체계를 더욱 강화하려 합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환경과 특성을 가진 구성원, 이용자, 파트너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행복한 일터, 만족스러운 서비스, 함께 성장하는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선 글로벌 인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네이버의 사업 관련 주요 특성을 반영한 인권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권 정책에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네이버가 준수할 10대 인권 지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인권경영 강화를 위해 사업 전반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권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 갈 전담조직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CEO 직속인 인권전담조직은 네이버의 인권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주요 이슈와 현안은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하게 됩니다.

네이버는 앞으로도 인권을 존중하고 건강한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관련 법률을 준수함은 물론,
회사 내부의 리스크를 사전 점검,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고, 사내 인권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리더와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더욱 강화해 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인권경영 강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진행 경과는 인권경영보고서를 통해 공유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개선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분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